

장성군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연내 완공 최선”

현재 공정률 70%...군·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열어 소통

장성군이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신설사업에 ‘온함’을 쏟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성 하이패스 IC(도로교차부)’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성지역 호남고속도로 틀게이트(요금소)는 남부권에 치우쳐 있어 중·북부 주민들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졌다.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백양사 등 장성의 주요 관광지가 북부권에 몰려 있어 외부 방문객들의 불편도 컸다. 이에 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장성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신설’을 핵심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갔다. 지난해 진·출입로 설치 장소 확정 이후 국·도·군 통부 고속도로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마치고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장성군이 추진 중이다. 하이패스 IC 진출입로(1.4km)는 도로공사가,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0.46km)는 군이 맡았다. 사업비는 총 110억원(장성군 67억원, 도로공사 43억원) 규모다. 접속도로는 보해앞 삼거리부터 국도교차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전체 공정 가운데 70%를 완료한 상황으로, 군은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맡은 진출입로 신설은 보해앞 국도교차로(진입로)와 구산천·노란예술센터 방면

(출입로)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실시설계안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군과 도로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장성을 이·동장과 사회단체장,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과 장성군, 공사 관계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의견 개진을 이어갔다. 장성군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장성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신설사업’에 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언론홍보,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전자여권 발행 전면 시행 담양군, 내달 21일부터

담양군이 다음달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 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은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적 요소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 디자인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가 남색으로 변경됐으며 민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새로운 개인정보면이 도입됐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기존의 전자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입국시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유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출입국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 행정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송사 시달린 장흥군, 돈도 잃고 행정신뢰도 잃었다

올해 36건 등 민선 7기 76건 소송 휘말려...13건 패소

장흥군이 민선 7기 들어 각종 인·허가 불허와 민원불만에 따른 법적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흥군의회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인 2018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까지 군민 등이 장흥군

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소송 건수는 무려 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건(1530만원 소송비용), 2019년 15건(5000만원), 2020년

20건(7100만원), 2021년 36건(6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34건은 승소했지만 24%에 해당하는 13건에서 군이 민원인에게 패소 판결을 받아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피해와 행정신뢰를 잃었다. 이처럼 법적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와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허가반려가 증가해, 해당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은 “주민들의 향상된 의식수준 변화에 맞게 행정업무의 질적 수준도 향상돼야 한다”며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해 소송으로 인한 행·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지난 26일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에서 전통어법인 가래치기 행사가 열렸다.

150년 전통 어업법 강진 ‘가래치기’ 축제 열려

세계관개시설물 병영면 중고저수지 일원서...조선시대 풍년 기원 마을축제서 유래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일원에서 지난 26일 100년 전통의 가래치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병영면지역발전협의회가 전통 어업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병영면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가 열린 중고저수지를 포함한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관개시설물에 등

재돼 있다. 전통어업 ‘가래치기’는 대나무로 만든 원뿔 모양의 통발 바구니로 물을 뺀 저수지 바닥을 눌러 가래 안에 가둬진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150년도 훨씬 넘는 조선시대에 성행했는데,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저수지의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확을 자축하고 내년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에서 유래됐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붕어, 메기, 가물치 등이 있으며 가장 큰 물고기를 잡으면 한해에 행운이 대통한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강진군 관계자는 “삶의 노고를 풀어내고 대어를 낚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100년 이상의 명맥을 이어온 가래치기 행사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전력거래소, 나주시에 기부금 500만원 전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KPX)는 사회적경제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나주시에 전달했다. (사진)

지난해 9월 나주시와 전력거래소, 기업은행 간 체결했던 ‘나주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 이행의 일환이다. 전력거래소는 기업은행 자금 예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로 기부금을 조성해 나주시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나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생활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



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전력거래소, 기업은행은 지난 10월 협약 갱신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상생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유가치 확산,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활동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새 전지 줄게 현 전지 다오 화순군, 폐건전지 배출 캠페인

화순군이 폐건전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새 전지 줄게 현 전지 다오’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전 주민, 기업,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에 집이나 직장 등에서 사용한 폐

건전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세트(2개)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최대 10세트로 제한된다. 일상생활에서 도어락, 리모콘, 장난감 등에 많이 사용되는 건전지는 재활용하면 철, 아연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관스레기로 버려져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